

# 농촌인력알선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영양에서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농작업 인부 수송버스 사고 참사 뒤에는 '농촌지역 일손 알선과 수송체계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께 영양군 신복면 주암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이모(72)씨가 몰던 25인승 미니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SUV 차량과 부딪힌 뒤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미니버스가 도로 옆 도랑에 빠지면서 버스 탑승자 15명 중 8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SUV 차량 탑승자 4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 농작업 일자리 알선 무허가 영업 성행...상해보험 무방비 노출

전날 영양 시종면에서 알타리무수확 작업을 마치고 나주로 귀가하는 도중 미니버스 사고로 숨진 탑승자 8명은 지자체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나 농협이 무료로 알선하는 일자리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무허가 인력 알선업자를 통해 농작업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자 이모씨를 포함한 사망한 8명과 중상자 7명은 대부분 주 반남면 출신의 고령 어르신들로 농작업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농협이 운영하는 일자리 알선소의 경우 작업인부들에 대한 상해보험과 인력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날 사고를 당한 사상자들은 무허가 알선업자를 통한 탓에 병원 치료비와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나주 지역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나주자활무료직업소개소를 비롯해 40개 등록업체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지만, 농작업 일자리의 경우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과거 관행인 '무허가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허가 일자리 알선행위가 성행하는 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특별히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작업인부 대부분이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 알선 시스템을 잘 모르는 고령자들이 많고, '작업반장'으로 통하는 일자리 모집책 대부분은 평소 잘 아는 지인들이어서 믿고 농작업 현장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일자리 알선이 성행하는 데에는 '편리성'과 짧은 일용직 구직자들의 농작업장 외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소개소들

## 무허가 영업 성행·상해보험 무방비 노출 등 정부·지자체, 공급·수송 시스템 개선해야

이 농작업 일자리 알선을 기피하는 것이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소개소를 통한 경우 구인자와 구직자 간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되지만 무허가 알선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때문에 고령 어르신들의 경우 등록 소개소를 찾지 않고 모집책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 받고 있다.

또 등록소개소 대부분이 작업 강도에 비해 품삯이 적은 농작업장을 젊은 일용직 구직자들이 기피함에 따라 품삯 단가가 높은 건설현장 등으로 일자리를 유도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품삯의 10%를 수수료로 취하는 등록소개소의 경우 단가가 높은 건설현장 등으로 구직자를 많이 알선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현재 무허가로 이뤄지고 농작업에 투입되는 여성 인부의 하루 품삯은 평균 7만5000원으로 대부분 책정돼 있다. 이중 중간 소개료와 버스 수송 운임을 포함해 2만원을 모집책

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면 나머지 5만 5000원을 하루 품삯으로 받고 있다.

'직업 안정법'에는 무등록 직업 알선소를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보다는 현실이 우선시 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 ◇ 농작업장 인부 수송버스 대부분 자가용 영업...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막막

농작업장 인부를 대상으로 수송 운임을 받는 버스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인력 공급업체나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자가용 버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지역 농작업 알선행위 대부분이 무허가로 이뤄지고 있고 일자리 모집책과 운송책이 분리돼 있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가용 영업을 성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영양 농작업장 인

부 수송용 미니버스는 자가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용 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임을 받고 인부를 실어 날렸다면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사고 버스는 여객운송용 차량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에 영업용으로 신고 되지 않아 피해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농작업 현장에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도 요원하다.

수송용 차량 대부분이 미니버스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른 아침 시간인 오전(새벽) 4시30분에서 5시경 농작업장으로 출발했다가 해질녘인 오후 6시경 귀가하는 인부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경찰과 행정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업인 김모(56)씨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서는 등록 소개소를 통해 인부들이 왔는지, 무허가 모집책을 통해 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면서 "다만 농작업을 하러 온 인부들이 정당한 품삯을 받고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부터 수송 과정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꽃으로 고미움 전하세요 봄기운 가득 가족과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퍼지는 5월 가정의 달인 2일 오후 경기과 전화재단지에서 시민들이 알록달록한 카네이션과 선물용 꽃을 구매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NO'...광주시 285건 적발

광주시는 2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2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286건을 적발해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는 지난 8주 동안 진행된 불법주정차 합동 특별단속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다.

광주시는 지난달까지 제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던 만큼 이달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규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은홍 기자

## 품질시험 영향력 행사건설사 간부등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 건설사제 품질검사 업체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도록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건설업체 품질관리실장 A(40) 씨 등 전국 37개 건설회사 품질관리실 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로 특정 건설사제 품질검사 업체 공동대표 B(44) 씨 등 2명도 입건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건설사제 품질시험을 우리 업체에 의뢰해 주면 시험비 일부를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720여 회에 걸쳐 품질시험을 의뢰한 뒤 시험비 1억3000여 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B 씨 등 2명은 2012년 7월부터 품질검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품질시험 의뢰권한이나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실장들에게 접근, 리베이트 제공 약속과 함께 25여억 원 상당의 품질검사를 수주하고 이중 7억여 원을 A 씨를 포함한 건설사 관계자 60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건설업체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PC방 종업원 유인한 뒤 금품 훔친 형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PC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5) 씨 등 형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29일 오전 9시17분께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종업원 B(25·여)씨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형제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형 A 씨가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종업원 B 씨를 유인하는 사이 동생 B(23)씨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CCTV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등을 토대로 A 씨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했다.

A 씨 등이 다른 특수절도건으로 구치소에 입감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면회조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제주 해안가서 미확인 포탄 2개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미확인 포탄 2개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서편 끝단 부근 해안가에서 길이 25cm, 직경 76mm 포탄이 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서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미확인 포탄 2개를 확인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포탄은 해경과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감식한 결과 뇌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 같은 결과를 해군 제주기지전대 폭발물처리반에 통보하고 포탄을 인계했다.

## 성매매 여성·포주폭행 돈 빼앗은 조폭 구속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홍덕경찰서는 2일 강도상해 혐의로 조직폭력배 A(27)씨와 범행에 가담한 B(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5일 오전 4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28)를 마구 때린 뒤 현금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작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자격사칭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구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료 위탁받아 전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민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구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